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경성의 공간표상

- 한일(韓日)문화의 혼재성을 중심으로 -

변찬복*
byunim@anyang.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3.2 카페에서의 한일문화 혼재성 |
| 2. 조사대상소설의 주요거점공간 | 3.3 거리배회와 근대적 도시풍경 |
| 3.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혼재성 | 3.4 집(가옥) |
| 3.1 조선신궁과 남대문 일대 | 4. 나가는 말 |

主題語 : 공간표상(Spatial Representation), 문화적 혼재(Cultural Mixture), 근대건축물(Modern Architecture), 서사공간 (Narrative Space), 문화주택(Cultural Residence)

1. 들어가는 말

서울은 조선시대의 한양, 식민지기의 경성, 그리고 한국전쟁이후의 재건설을 거치면서 융성과 쇠퇴를 거듭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 경관을 형성하였다. 초가집과 기와집들이 인왕산, 북한산, 남산과 같은 자연물에 둘러싸인 모습을 띠고 있었던 조선 말기 한양도성을 생각하면 상전벽해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1940-50년대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지금의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식민지기와 개발독재시기의 형상을 어렵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간은 물리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이미지가 지워지기도 하고 다시 새겨지기도 하면서 현재의 모습 속에 과거 여러 시대의 이미지가 중첩된 ‘거듭 쓰인 양피지(Palimpsest)’와 같은 역할을 한다. 더욱이 현재 서울도심의 기본 틀이 식민지기 일본의 대대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경성은 ‘거듭 쓰인 양피지’의 서사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이미지일 것이다. 아직도 서울도심에는 식민지기에 계획되고 건설된 공공 건축물과 거리들이 많이 남아있다. 한국은행 앞 네거리와 한국은행, 신세계백화점, SC제일은행은 1920년대 지어진 건물이며 남대문로와 종로, 을지로,

*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층무로, 소공로 등 서울도심의 대부분의 도로가 1900년대 초에 건설되었다. 식민지기의 최대 변화가라는 진고개는 서울중앙우체국 오른쪽을 끼고 돌아서서 삼일고가까지 이어지는 소로를 말한다. 적어도 식민지기 경성의 시가지의 위치와 넓이는 지금의 서울도심의 지적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많은 건축물들이 유리와 강철로 세련되게 장식된 현대적 건축물로 대체되고 피맛골과 같은 주요 골목길들이 사라짐에 따라 서울 거주자나 문학기행자가 식민지기 경성의 이미지를 소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학기행자들은 소설의 서사를 통해 식민지기 경성의 풍경을 상상할 수 있다. 이는 1920-30년대에 발표된 사실주의 소설에 의해 경성의 공공건물, 시가지, 전차와 택시, 카페와 다방, 여염집 가옥 등 디테일한 공간들이 표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성은 근대적 시가지 형성 초기에는 일본인의 거주지인 남촌과 조선인의 거주지인 북촌으로 나뉘는 이중구조를 형성하였으나) 점차 생계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고 일본상점들이 북촌으로의 진출함으로써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이 스스럼없이 혼재되어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인과 일본인들 모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염집 가옥 내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조선식 온돌이 공존한다든지, 조선인 카페 주인이 일본인 종업원을 고용한다든지 조선인이 기모노와 게다를 착용하고 반대로 일본인이 한복을 착용하는 것 등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일본의 근대문화가 자연스럽게 혼재한다는 설득력 있는 반증일 것이다.

근대소설은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혼재성을 등장인물의 행동과 사색, 플롯, 그리고 물리적 배경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경성에서 태어나 주로 경성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쓴 염상섭은 다수의 소설(삼대, 무화과, 이심, 사랑과 죄 등)에서 남촌과 북촌을 가리지 않고 넘나드는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사색을 통해 경성 공간을 세밀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소설은 작가의 경험과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텍스트이지만 그 공간적 배경은 현재에도 실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과거의 경성 풍경을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1920-30년대의 경성의 모습을 지금의 서울 풍경에 중첩시키는 작업도 수행할 것이다. 오늘날 서울도심의 문학공간을 따라가는 문학기행²⁾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작품에 구현된 장소의 의미화를 통해 독서할 때 느꼈던 감동을 재현하고 미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컨대 본고의 연구목적은 염상섭의 3대 장편

-
- 1) 김영근(2000)「일제하 식민지 근대성의 한 특징: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 경성의 공간구조는 청계천을 경계로 북쪽은 원주민 거주공간(조선인)과 남쪽은 거류민 거주공간(일본인)으로 기획되었다.
 - 2) 한국작가회의는 2013년 2차에 걸쳐 염상섭 소설 속의 장소를 되밟아가는 문학기행을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6년 3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7회 서울 시(詩)문학 기행을 개최한 바 있다. 이 밖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구보의 행로를 따라가는 행사는 잘 알려져 있다.

소설 <삼대>, <사랑과 죄>, <무화과>가 경성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표상했으며 일본문화와 한국문화가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사랑과 죄>는 1927년 8월 5일부터 1928년 5월 4일까지 동아일보에, <삼대>는 1931년 1월 1일부터 9월 17일 까지 조선일보에, <무화과>는 1931년 11월 13일부터 1932년 11월 12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소설이다. 조사대상 세 소설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의 경성을 주요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문화적·공간적 배경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표상’의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에 상대하여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혹은 “지각에 의하여 의식에 나타나는 외계대상의 상(像)”이다.³⁾ 따라서 특정 소설을 통해 경성의 공간 표상을 탐색한다는 것은 특정 작가와 등장인물들이 주관적으로만 지각하는 경성을 탐색한다는 한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공공건물과 거리, 골목길, 가옥, 카페와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이동행위와 관계, 사건의 전개를 통해 식민지기 경성의 지리적 형상과 문화적 현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상기한 염상섭의 3대 장편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이동반경이 당시 경성의 다양한 장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특정 장소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주관적 지각이 독자들이 연상하는 객관적인 장소 이미지와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고가 지향하는 것은 특정 인물이 활동하고 사건이 전개되는 주관적 공간으로서 경성의 장소성과 객관적·지리적 관점의 장소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소설들의 공통점은 돈과 성(性)이라는 통속적 주제와 식민지기 일본의 근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갈등을 동시에 다루는 이중적 플롯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성이라는 공간이 물신숭배와 이진투구가 일어나는 속물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사이의 이념적 대립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사대상 소설 속에 형상화된 경성의 이중적 도시 구성, 재경성 일본인, 이중 언어 사용, 한일 복합 가옥구조, 카페의 혼종적인 실내 풍경, 근대적 건축물이 즐비하게 늘어난 주요대로, 조선인과 일본인 가옥이 혼재하는 골목길 풍경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이념적·문화적 혼재성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작가는 조사대상 소설에서 사회주의에 동조하거나 조선인의 민족주의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재경 일본인을 등장시키는가 하면 반대로 식민지 자본주의에 호의적인 조선인 부르주아 계층을 등장시킴으로써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념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소설의 서사에 나타난 사건 전개에 핵심이 되는 거점장소들을 선별하고 소설이 발표된

3) 표준국어 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시점을 전후하여 당시 경성의 도시 경관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조사대상소설의 주요 거점 공간

염상섭의 소설 <삼대>, <사랑과 죄>, <무화과>는 등장인물들의 장소 이동을 묘사하면서 구체적인 동단위의 지명을 지시하고 있다. 세 작품의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거점 장소는 진고개, 남대문, 조선총독부, 조선신궁, 선은(鮮銀)광장, 조선은행, 경성우편국, 세브란스 병원, 의전병원, 북미창정, 서소문정, 효자동, 안동, 수표동, 홍파동 등이며 주요 도로는 이들 거점 장소들을 연결하는 남대문 1, 2, 3 정목(남대문로), 태평통(태평로), 광화문통(세종로), 본정1~3 정목(충무로)이다. 서사의 빈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본 주요 거점 장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주요 소설 공간

장소의 유형	장소 명	공간 서사 요약
공공건축물	조선신궁 (남산공원)	<사랑과 죄>에서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공간권력을 나타내는 장소로, <삼대>에서는 산책과 여가선용에 적합한 장소로 표상되었다.
	남대문	세 소설 모두에서 음울한 도시풍경을 형상화하는데 사용된 장소다.
	경성우편국 (서울중앙우체국)	<사랑과 죄>와 <무화과>에서는 인물들의 이동배경으로만 사용되었으나, <삼대>에서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세브란스 병원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사랑과 죄>에서 서사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중심 장소다. 독립운동가 김병화는 위장입원 환자로, 지순영은 간호원으로 일하는 장소이며, 이해춘, 정 마리아, 류진 등 중심인물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XX 신문사	모든 사건이 이원영이 투자한 XX 신문사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대로·골목길	선은(鮮銀)광장	지금의 한국은행 앞 네거리를 말하며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근대소설들의 배경장소이기도 하다.
	광화문로	<삼대>에서는 육조거리로 표현하고 있으며 조상훈과 흥경애가 배회하면서 사랑을 꽃피우는 장소로 저녁노을이 질 즈음 눈발

장소의 유형	장소 명	공간 서사 요약
		내리는 도시풍경을 시학적으로 표현한 장소이기도 하다.
	남대문 2정목	지금의 을지로 네거리에서 한국은행 앞 네거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삼대>의 조덕기가 황금정 네거리로부터 본정 입구까지 걸으면서 거리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본정 1-3정목 (진고개)	지금의 중구 충무로, 혹은 명동8나 길이다. 서울중앙우체국과 대연각 타워 사이 입구로부터 삼일대로를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남산정 길 (회현동 고개와 소파로)	회현동->소파로->힐튼호텔로 이어지는 거리. <삼대>에서 홍경애와 김병화의 산책길과 <사랑과 죄>에서 남산정 카페가 위치한 거리이다.
카페	바커스 (명동8나 길)	<삼대>에서 홍경애가 일하는 카페. 본정 3정목에 위치한다.
	남산정 카페 (숭의 여자 대학교 서쪽 소파로)	<사랑과 죄>에서 정마리아, 이해춘, 류진, 김병화가 우연히 공산주의자 적토와 일본인 무정부주의자 아마노와 만나서 이념논쟁을 벌이는 장소로서, 일본형사의 밀고로 중심인물들이 옥고를 치르는 계기를 만든 장소다.
	보도나무 카페 (인사동)	<무화과>에서 최원애가 독립운동가 김병국을 돕기 위해 일본인 안달외사(安達外史)의 후원으로 인사동에 개업한 카페다.
집(가옥)	조덕기(수하동) 홍경애(북창동) 필순네(홍파동) 산해진(효자동)	<삼대> 조덕기의 집은 수하동으로 할아버지 조의관의 유산 문제로 고뇌하는 장소다. 홍경애 집은 선은광장, 본정, 남대문과 연결되는 북창동이다. 산해진은 홍경애가 김병화와 공동투자로 효자동에 개업한 일본 반찬가게로서 사회주의운동을 숨기기 위한 사업체이다. 필순네는 새문밖 홍파동에 겨우 토막집을 면한 일각 대문집으로 표현된다.
	이해춘(미근동) 지순영(냉동) 심초매부(서소문동)	<사랑과 죄> 이해춘의 집은 미근동에, 지순영의 집은 냉동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해춘의 그림 작업은 그의 스승인 일본인 심초매부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 서소문정에 위치한 심초매부의 집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이원영(계동) 최원애(소파로) 조일사진관(수표동)	<무화과>계동의 이원영 집은 아버지 이정모의 사기행각, 사위 한인호의 방탕, 이원영의 사업실패로 인한 실의 등 부르주아 집안의 몰락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최원애 집은 남산길에 위치한 문화주택이다. 조일사진관은 김봉익, 조원애가 독립운동을 위해 수표동에 마련한 비밀 장소다.

세 소설의 서사공간을 살펴보면 사건의 발생과 중심인물들의 이동궤적이 남촌과 북촌을 망라하여 경성의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식민지기 중심 장소의 하나였으며 박태원과 이상의 소설에서도 빈번하게 묘사되었던 종로지역이 염상섭의 소설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작가는 당시 최상류층에 해당하는 이해춘<사랑과 죄>, 이원영<무화과>, 조덕기<삼대>의 집을 가족구성원들의 이념적 괴리와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투구로 인해 몰락해가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이해춘의 부친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일본 특명 공사로 동경에 있던 인물로, 조덕기의 할아버지 조의관은 을사조약이후 양반 족보를 둔 주고 산 인물로, 이원영의 조부는 조선의 대지주로서 소작료를 착실히 모아 정미소를 운영했던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주인공들은 친일 행위와 고리대금, 그리고 민족자본의 활용으로 인해 형성된 자산을 상속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해춘, 조덕기, 이원영은 각각 김호연(변호사), 김병화(무직), 김동국(기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동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봉건적 가족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도구적 인간관에 저항하고 인간 중심적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이해춘이 자신의 아틀리에(atelier)로 사용하고 있던 서소문정에 위치한 심초매부의 집은 지순영과의 연정이 싹트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공간으로 묘사한다. 카페는 주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장소로서 인물들 간의 갈등 혹은 관계 개선을 위해 술을 마시는 즐거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모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장소로 그려진다. 작가는 경성이라는 도시를 남촌과 북촌, 일본인과 조선인, 그리고 인물간의 계급적 차이를 의도적으로 구분하거나 부각시키지 않고 사회적문화적 요인들의 혼종성과 다양성을 부각시켰다.

3.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혼재성

3.1 조선신궁과 남대문 일대

염상섭의 작품에서 작가는 남산 자락에 위치한 조선신궁과 조선신궁의 신작로를 따라 내려오면 만나게 되는 남대문과 그 인근의 조선유민들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있다. 특히 <사랑과 죄>에서는 소설의 서두에 조선신궁 신작로 공사를 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자조(自嘲)섞인 노동

요를 빌어 조선신궁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신궁은 일왕가의 시조신인 아마테라스(天照大神)와 한국 강점의 주역인 메이지(明治) 일왕을 제신으로 모신 신사로서 1925년 10월 25일 진좌제(鎮座祭)를 거행하고 건립되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신들이 깃들신체(神體)를 운송하고 축하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성역(1925.09.30.)과 조선총독부 그리고 경성부립 대운동장(1925.10.15.), 조선철도호텔(지금의 소공동 조선포텔)이 진좌제 시기에 맞춰 건립되었다.⁴⁾

남대문 동편 벽에서부터 남산으로 향하여 마조 건너다보고 시원스럽게 치쳐 뿌러 올라간 조선신궁의 신작로는 다지다가 내어버려둔 조약돌 판이 북쪽으로 치우쳐서 사태가 닳든지 반 간통이 넘어나 고랑이 깊숙히 패어져서 내려간 것을 어제 오늘 날이 들자마자 벌서 다시 붓고 달고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잡방고의 우에 싹검어케 땀에 용초를 한 등거리를 걸친 인부들이 육을 육을 꿔는다.(중략)..... 한울 밑까지 치어 올라간 듯 한 신궁 압히 축대 우에서 남대문 문루에서 내려다 보면 혈일 엮는 개미새끼들이 달달 복는 가미숫 바닥에서 아물아물하는 것 가틀 것이다. “장안에 높기론 북악산의 아방궁, 남산의 조선신궁 에헤에헤야 넓은 길엔 자동차요 좁은길엔 외씨가튼 밭씨로 아장아장 엘넬네상사디야 에헤 조쿠나 기생아씨님네 소풍하실 길 또 하나 생겼단다.” (염상섭 전집 2, pp.11-12)⁵⁾

조선신궁은 경성 전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이는 마치 신이 인간세계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신비성과 압도적인 권력의 상징으로 비취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인부들은 신궁을 권력을 가진 자들의 놀이터와 기생들의 소풍장소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일제는 학생들과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단체로 참배하게 하였으며 소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수신교과서(일왕에 충성하는 정신을 기르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나눠주는 행사도 거행하였다.⁶⁾ 이러한 조선신궁은 한양공원이 조성되었던 자리에 건립되었으며 그 시각적인 스펙타클로 인해 관광요소의 하나로 기능하였다. 조선신궁이 건립되기 이전에 지금의 애니메이션 센터와 숭의여자대학교 일대에는 왜성대(倭城臺)가 건립되었으며 그 인근에 남산대신궁(경성신사)를 세운 적이 있었다. 손정목에 의하면 이 장소는 조선시대 군졸들이 무예를 닦던 예장(藝場)으로 불렸던 곳이라고 한다.⁷⁾

상기 예문에서 어떤 ‘사태’로 인해 신작로의 보수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는 1925년 7월에 경성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다. 또한 오창은⁸⁾은 <사랑과 죄>의 시간적 배경

4) 김대호(2015)「20세기 남산 회현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도시연구』13, pp.30-33
 5) 염상섭,(1897)『염상섭전집 2:사랑과 죄』민음사, pp.11-12
 6) 『昭和四年の朝鮮 神宮』p.7 김대호 상계서에서 재인용, p.34
 7) 손정목(1982)『한국 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일지사, pp.163-164

을 1925년 7월 22일로 보았는데 이는 지순영이 이해춘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홍수 사태를 언급하면서 날짜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삼대>에서는 흥경애가 김병화와 사회주의 운동 계획을 의논하기 위해 진고개로부터 회현 자락 신작로(西參道)을 거쳐 조선신궁으로 산책을 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어느 가을날 해가 질 즈음 인적 하나 없이 을씨년스러운 신작로와 조선신궁 입구 384개의 돌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다. 그리고 다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신작로(表參道)로 내려온다. 이들에게 조선신궁은 일본 순사들의 감시를 피해 사회주의 운동을 기획하는 장소일 뿐이다. 실제로 조선신궁에 대한 작가의 묘사는 매우 냉소적이다.

오후 네 시나 되어 쌀쌀하기는 하나 그래도 오늘부터는 날이 풀려서 손발이 시릴 지경은 아니다. 길을 남산으로 드러선다. 병화도 잠자코 따라나설 뿐이다...(중략)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조선신궁 앞마당을 휘이 돌아서 삼백여든 몇 층이라는 돌층계를 나란히 서서 간신히 내려서니 해는 벌써 누엣누엣하여졌다.(삼대, p. 219)



<그림 1> 병화와 경애가 내려오던 조선신궁, 남대문 쪽 신작로와 경애가 병화에게 북창동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 남대문 정거장

위의 인용의 (중략)부분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병화에게 사회주의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일단 생활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근대소설 작가들이 조선신궁을 작품의 구현하는 기법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인들이 도저히 동화될 수 없는 이질적 공간 혹은 경성의 경관을 구경하는 관광명소로 묘사할 뿐이다. 즉 <사랑과 죄>에서 보듯이 조선신궁 앞 신작로는 조선인부들의 생활을 위한 일터일 뿐이며 식민자의 모습과 그 의미는 은폐된 채 묘사된다. 다만 조선인부들의 초라한 행색이 장엄하게 우뚝 서 있는 조선신궁에 압도되는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강경애는⁹⁾ 조선신궁을 서울구경 혹은 일본 문화를 경험하

8) 오창은(2013)「염상섭문학과 공간의 문화정치: 사랑과 죄외 1920년대 경성」『국어어문』58, pp.166-167
동아일보에는 1925년 7월4일부터 대홍수가 발생했음을 기사에 실고 있었다.

9) 강경애(2005)『인간문제』범우, p.272

는 대상으로 표현한다. 이는 일본의 정체성과 조선신궁의 의미가 여전히 낮설게 느껴지고 오로지 높이 치켜 올라간 도리이의 흰색이 소나무 숲의 푸른빛과 대비되는 색채의 콘트라스트 (contrast)만을 느낀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때 요란스러운 소리에 그들은 머리를 돌렸다. 소나무 아래로 작은 계다 큰 계다가 뒤섞여서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다. 계다를 따라 시선을 옮기니 푸른 솔밭 위로 화강석으로 깎아 새운 도리이 (鳥居)가 반공중에 뚜렷하였다.(인간문제, p.272)

염상섭 소설에서 남대문 인근의 풍경을 사실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작가의 세밀한 묘사는 실제 당시 이 지역의 데모그래픽(인구 통계적 자료)과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사랑과 죄> 초반에서 지순영의 눈을 통해 본 경성의 첫 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었다. 이는 지순영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남대문 인근으로 걸어오면서 목격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이걸 좀 봐 주십시오.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람이저 저도 부끄러운 줄은 압니다...이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약을 하려야 할 수가 있습니까. 장마통에 움 속에서 습기로 해서 아주 말뚫되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매독병이 아니었다. 세상에도 그런 몹쓸병이 있었든지...순영이는 작고 눈앞에 떠오르는 그 망측한 꼴을 잊으려고 애를 썼다.(염상섭 전집2, pp.19-20)

작가는 1925년 발생한 대홍수라는 천재지변이 아편쟁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심한 매독을 앓고 있는 젊은 결인과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성을 상실한 순영의 처지, 그리고 남대문이 위치한 이 지역은 조선신궁과 경성역, 조선총독부, 그리고 화려한 소비 공간인 본정통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남대문은 아편쟁이와 결인들이 우글거리는 불결한 거리의 이미지로 형상화 되었다. <삼대>에서도 병화와 경애가 남대문 전차 역에서 북창동에 위치한 경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병화가 느낀 인상도 식민지 자본주의로부터 소외된 계층과 어두운 공간 이미지이다.

사실 청인의 상점이 쪽 들어섰고 아편쟁이와 매음녀가 꼬이는 음침하고 우중충한 이 창골 속을 휘돌아 들어갈수록 병화는 강도들의 소굴로 붙들려 들어가는 듯한 음험한 불안과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었다.(삼대, p.221)

<삼대>에서는 아편쟁이와 중국인 상점을 연관시키고 있다. 원래 남대문을 중심으로 남산정과 육정(회현동), 북창정, 장곡천정(소공동), 서소문정은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었지만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만큼 많이 거주하였다. <사랑과 죄>와 <삼대>가 발표된 1920년 후반-1930년 초 서소문정에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거주자는 각각 572명, 586명, 668명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북창정의 경우 785명, 610명, 114명이었다.¹⁰⁾ 1920-30년대에 서소문정과 태평통, 그리고 수표정에 중국인 뒷골목이 조성되었으며 아편 관련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당시 남대문 인근에 아편쟁이와 걸인, 노숙자가 많았던 이유도 남대문에서 가까운 곳에 중국인 거주지가 형성되고 이 곳에서 아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남대문의 불결한 풍경은 일본인들이 쓴 소설에도 자주 나타난다. 나카지마 아쓰시(中島敦)의 <巡查가 있는 風景>¹¹⁾에서도 남대문 성벽아래서 죽어간 노숙자들과 남대문인근 골목에서 목격되는 “중국인들의 아편과 마늘냄새, 조선인의 값싼 담배와 고춧가루가 뒤섞인 냄새”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유곽과 그곳에서 몸을 파는 김동련의 기구한 삶을 중첩시켜 남대문을 음침하고 더러운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남대문은 힘없이 앉아있는 실업자들의 이미지와 중첩되고 있다.

3.2 카페에서의 한일 문화 혼재성

<삼대> 홍경애가 일하는 ‘바커스’는 진고개(작가는 본정통 3정목으로 적시하고 있음)에 위치한 조그만 술집이다. 술집주인은 일본인이지만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이지적인 여자로 묘사된다. 술집 주인 여자(주부)와 홍경애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있다. 그리고 바커스를 드나드는 손님들도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골고루 왕래하는 술집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부(酒婦)와 홍경애는 업장에서는 기모노를 착용하고 있으며 일본어와 조선말을 혼용하고 있다. 당시 종로네거리와 진고개는 각각 북촌과 남촌을 대표하는 소비문화의 장소였다. 사방으로 넓게 뚫린 길, 자동차, 아스팔트, 군중과 책사(서점) 카페, 상점의 불빛과 축음기 소리는 도시산책에 감미로움을 더해 주었다. 또한 거리를 활보하는 모던 걸과 모던 보이의 옷차림새도 거리의 구경거리 중에 하나였다. 진고개는 도쿄에서 가장 변화한 긴자의 이미지가 새겨진 장소로 조선과 일본 군중이 판타스마고리아에 매혹되어 산책하는 경성의 대표적인 장소다. 도쿄에 긴부라(銀座)가 있다면 경성에는 혼부라(本銀座)가 있었다. 1929년에 미쓰코시백화점이 들어섰으며 히라타(平田)백화점, 1935년 남대문 2정목에 조지아 백화점(미도파백화점

10) 경성부(1926)「京城部阿洞別 世代及 人口」, 오미일(2013)「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 거리와 마을 이미지의 정치성」『東方學志』163, p.16에서 재인용.

11) 中島敦(1995)『中島敦全集』筑摩書房, p.17, 류상희(2004)「나카지마 아쓰시 문학작품속의 조선」『일본어 문학』23, p.375, p.380에서 재인용.

전신)이 개장되었다.

<삼대>의 ‘버커스’가 남촌에 있다면 <무화과>¹²⁾의 ‘보도나무 카페’는 북촌 인사동에 위치해 있다. ‘버커스’에서는 일본인 주인과 조선인 모던 걸(홍경애)이 동등한 관계로 일을 했다면 ‘보도나무 카페’는 조선인 여주인(최원애)과 일본인 여급(마쓰코)이 일하고 있으며 다른 종업원들의 복장은 ‘버커스’와 마찬가지로 일본 옷이다. ‘버커스’와 ‘보도나무 카페’의 공통점은 첫째, 카페가 남녀 간에 에로적인 얘기를 주고받을망정 퇴폐적이고 음란한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개방적인 대화가 오가는 장소라는 점과 적어도 염상섭의 소설에서 나오는 소규모 카페의 주인과 마담들은 어느 정도의 교양과 사회적 의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카페의 여주인과 주요 여급이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주의 운동을 하거나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인사동 같은 조선 사람의 변화지지요, 주인도 조선여자가 혼자 한다기도 하고 일본 사람 남편이 뒤에 있다고는 하나 그래서 그런지 집 이름부터 ‘버드나무’란 조선말을 ‘보도나무’라고 일본말로 취음하여 지었고 조선계집애들도 양장 아니면 일복을 시켜서 내세웠다. 말은 물론 일본말. 일어 모르는 늙은 오입쟁이가 가도 조선말을 간신히 의사소통이나 될만큼 반씩반씩 잘라서 아껴쓴다. (무화과, p.60)

‘보도나무 카페’는 손님 대부분이 조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종업원이나 조선 종업원 모두 일복을 착용하고 일본말로 소통해야 하는 공간이다. 인사동이 북촌에 속해 있고 조선 사람의 변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색이 진하게 드러나는 한일문화가 혼재하는 공간이다. ‘보도나무 카페’는 일본인 안달외사(安達外史)의 후원으로 최원애가 운영하는 카페이다. 사실 안달외사는 남촌이 아니라 북촌에 거주하며 상해로 망명해 있는 최원애의 애인 김동국과 사회주의 운동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도나무 카페’의 종업원이나 손님들도 안달외사와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면에서 ‘보도나무’는 조선인들의 주요 거주지인 인사동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인 손님들이 더 많이 왕래하지만 여전히 식민지 권력의 감시기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급 마쓰코는 북촌의 카페에서 조선인 최원애의 관리 하에 여급으로 일하는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비 전형적인 재경 일본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위의 예문에서 ‘변화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20년대 경성 도심, 즉 종로와 본정을 물건을 거래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점가’로 부르다가 1930년대에 와서는 ‘번화가(繁華街)’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일본인 거주지인 본정을

12) 염상섭, (1995) 『무화과』 『한국소설문학대계』6, (주)동아출판사

변화가라고 불렀지만 1930년대 들어 종로 일대도 변화가라고 일컬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거리가 물건 거래 장소임을 넘어서서 영화와 문학, 상점과 사람 구경, 술집 출입 등 그 시대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장소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과 죄>에서 나오는 ‘남산정 카페’는 여급을 두고 양주와 맥주를 제공하는 주로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카페이다. 김호연과 이해춘은 청년회관(종로 기독교청년회관, YMCA)에서 개최된 정마리아 음악회 참석한 이후 정마리아와 함께 남산 한양공원 근처에 있는 일본 요리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카페에 들른 것이다. 여기서 해춘의 매제이며 허무주의자인 류진, 공산주의자 적토(赤兎)와 일본인 아나키스트(anarchist) 야마노(山野)를 우연히 만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모순에 대해 사상 논쟁을 벌인다. 오창은은 이들이 들른 카페를 <사랑과 죄>가 1925년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근거로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던 ‘카페 킹(킹)’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¹³⁾ 이 곳은 일본인 손님들과 여급들이 있었고 조선인은 주인공 일행뿐이었다. 따라서 해춘과 병화도 일본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카페 킹(킹)’은 조선의 지식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카페지만 일본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식민지 권력의 은밀한 감시가 여전히 존재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요리집과 카페의 위치는 한양공원 근처라고 표명하고 있는데 한양공원은 숭의여자대학교 자리에 조성했던 왜성대 공원의 서쪽 지역에 위치한 장소로서 1925년 조선신궁이 건립되었던 장소와 일치한다. 즉 카페의 위치는 일본인들이 19세기말부터 거주했던 지역이며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서편 소파로(小波路)로 추정된다. 일본인의 중심적 거주지에 있는 카페에서 조선인들이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실제로 일본인 카페에서의 논쟁으로 인해 해춘은 일본 경찰로부터 가택수색과 조사를 받게 되고 적토와 야마노, 김호연과 지순영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다. ‘카페 킹(킹)’에 대한 에피소드는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혈인 류진,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호연, 호연에 동조하는 조선 귀족 해춘과 같이 이념적으로 다양한 인물들을 하나의 소비 공간에 배치시키고 있다. 이는 식민지기 경성이 비교적 사상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소비가 보장되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피식민자인 조선인들은 식민지 권력이 만들어낸 감시기제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훈육되는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1930년대 카페는 다수의 여급을 두고 양식과 술을 제공하는 대형 카페, 여급이 술을 접대하

13) 오창은, 상계서, p.176

는 소규모 카페, 그리고 여급 없이 배경음악과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킥다점으로 나눌 수 있다.¹⁴⁾ <사랑과 죄>의 ‘남산정 카페’와 본정 2정목에 있던 <삼대>의 ‘바커스’는 두 번째 유형, 인사동이 있던 <무화과>의 ‘보도나무 카페’는 세 번째 유형의 카페이다. 그리고 <삼대>와 <무화과>에서 나타난 카페는 여급의 복장과 언어사용에 있어서 일본풍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30년대 초 일본에 있는 여급들을 데려오고 일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를 개업한 이후에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이 카페와 킥다점의 증가는 도시자체가 갖는 자유를 즐기는 도시산책자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변화가의 변화자체를 상징하는 1930년대 도시문화의 상징이었다.

3.3 거리 배회와 근대적 도시풍경

등장인물들은 몸의 이동을 통해 즐거움과 슬픔, 분노와 평정, 질투와 용서 등 다양한 심리를 공간에 표상한다. 근대 도시 경성에서 인물의 이동은 주로 자동차나 전차가 다니는 대로(大路)와 동(洞) 단위 지역의 미로(迷路)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도로의 형태는 인물들의 이동방향과 이동목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물들이 도로의 형태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은폐하거나 타인의 행방을 탐문(探問)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인물들의 이동 서사를 통해 대로와 미로의 공간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삼대>에서 조덕기가 집안 제사행사에 붙들려 있는 것이 귀찮아져서 총독부 도서관(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진고개의 ‘바커스’로 가는 길에서도 많은 군중과 축음기 소리가 거리 풍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덕기는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에 도서관에서 나와서 어디 가 차나 먹을까 하고 진고개로 향하였다...우선 책사에 들어가서 책을 뒤지다가 잡지 두어 권을 사 들고 나와서 복작대는 거리를 예서 쳐서 흘러나오는 축음기 소리를 들어가며 올라갔다.(삼대, p.63)

위의 예문에서 덕기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을 때 총독부 도서관을 나와 진고개로 향하였고 묘사된 것으로 보아 덕기는 남대문 제2정목 서편 거리를 따라 경성우편국(지금의 서울중앙

14) 여환진(2010)「본정과 종로 : 재현을 통해본 1930년대 경성 "변화가"의 형성과 변용」석사학위논문, p.70 “카페는 1910년대 후반부터 존재했지만 1931년 오사카식 카페의 경성진출과 함께 대형화, 기업화 해가며 1930년대 변화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갔다. 모던도시의 밤공간에 쾌락과 네온을 공급하며 완전히 새로운 가로경관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한다. 건축의장적인 면에서 카페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새로운 스타일을 정립했다.”

우체국), 즉 본정 입구인 선은(鮮銀)광장¹⁵⁾ 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독부 도서관은 남대문2정목 대로에 면해 있지는 않았지만 남대문2정목 대로에서 보면 충분히 인식할 만큼 규모가 컸다. 그리고 당시 남대문 2정목에 있던 건물들은 거의 모두 일식, 혹은 서양식 건물로 지어져서 한옥형식의 가옥이나 건물은 없었다고 전해진다.¹⁶⁾ 1910년대는 한옥입면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30년대는 양식과 일식입면의 건물이 남대문통의 전체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했다고 한다. 따라서 <삼대>가 1931년 발표된 신문 연재소설임을 감안하면 그림 2와 같은 거리풍경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덕기가 총독부 도서관을 나온 시각인 5·6시 경 남대문 2정목의 실제 사람 통행량은 1,500여명, 자동차 통행량은 1,333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는 이 지역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융 및 유통업이 중심지이며 종로와 남대문을 잇는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덕기가 본정 2정목에 위치한 ‘바커스’를 가는 도중에 들른 책사(서점)는 본정1·2정목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서점들은 가장 번화한 거리인 본정1·2정목에 분포되어있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¹⁸⁾ ‘복작대는 거리’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축음기 소리’에 대한 덕기의 감정은 속도와 밀도가 높은 근대도시의 스펙타클과 풍요와 안락에 매혹된 여느 도시산책자의 감정과 유사해 보인다. 선은광장을 배경으로 하는 에피소드는 <삼대>와 <사랑과 죄>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랑과 죄>에서 불륜관계에 있는 류택수와 정마리아가 황금정네거리(을지로 1가 네거리)에서 조선은행을 거쳐 길 건너 경성우편국 앞까지 이동하여 동대문 행 전차를 타는 장면과 <삼대>에서 덕기가 수하동 집을 나와 전차를 타고 조선은행 앞에서 내려 경성우체국으로 들어가는 장면, 경애가 상훈과 함께 택시를 타고 청목당으로 들어가는 장면 등 소설에서 선은광장이 형상화되는 빈도수가 높은 것은 유흥과 소비의 중심지인 본정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백화점, 금융기관과 무역회사들이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15) 정지윤(2015)「시간의 흐름을 담은 장소의 회화화 연구: 한국은행 앞 광장 주변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pp.50-52. 선은전 광장의 위치는 남대문로의 중심이면서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이었으며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배력 강화의 상징적 장소이다. 1910년대에 광장부지와 분수대를 건립하고 1912년에 조선은행, 1915년에 경성우편국과 혼마치9명동8나 길), 1934년 미즈코시 백화점, 1935년 조선저축은행을 건립하였다.

16) 김지훈(2011)「1910-1930년대 경성(京城) 남대문통(南大門通) 가로경관 변화와 가로변 근대건축의 특성」석사학위논문, p.70

17) 김지훈, 상계서, p.22

18) 여환진, 상계서, p.145



<그림 2> 덕기는 책사에 들러 책을 하나 사고 빨간 부분 위쪽에서 선은(鮮銀)광장 쪽으로 걸어온다.

<삼대>의 상훈과 경애가 첫 데이트를 하는 장면은 인물들의 공간이동을 시학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다. 작가는 영추문 → 당주동 → 총독부 전차 정거장 → 광화문네거리 → 식당 → 보병대(지금의 정부청사)로 이어지는 장소들을 서정적으로 그렸다. 당시 영추문 인근은 효자동 전차 종점과 진명여학교가 있었지만 삼각산의 산바람으로 인해 차가운 공기가 감싸 도는 한적한 장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애가 상훈과 연애를 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괴로우니 학교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하자 상훈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글쎄 학교를 다른 데로 주선해 주실 수 없을까요? 삼각산에서 내리지르는 저녁바람이 영추문 문루의 처마 끝에서 꺾이어서 경애의 말을 휩쓸고 날아간다....총독부 앞으로 나오려니, 전등불이 환한 전차가 효자동서 내려와 닿다가 떠난다...황토현 앞까지 내려오면서도 두 사람은 또 아무 말도 없었다. 말을 꺼내기에는 똑같이 가슴이 벅찼던 것이다. 두 남녀는 황토현 네거리에 있는 파출소 옆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불만 환하고 난로 앞에 일본 계집애들이 웅기중기 앉았다가 우중우중 일어난다. (삼대, pp.88-89)

지금의 영추문에서 광화문 네거리에 이르는 거리에서 일어난 행동과 사색을 표현한 대목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가을 느리게 오고가는 전차와 식당의 전기불빛과 바깥 어둠이 콘트라스트(contrast)를 이루는 가운데 상훈이 경애에 대해 뜨거운 애정을 느끼고 경애 또한 유희의 감미로움에 빠지는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효자동과 마찬가지로 광화문(황토현) 네거리에 있는 파출소 옆 식당 역시 일본인 상권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효자동에서 내려와 총독부 앞에 선 전차는 안국동을 거쳐 종로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1929년 조선박람회개최되기 이전에 연장된 것이다.

<사랑과 죄>에서 지순영은 오빠 지덕진이 대부호 류택수와 결혼할 것을 강요하자 냉동>서 대문 네거리>봉래교를 배회하면서 해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돈을 위한 결혼 사이에서

고뇌하는 장면도 도시 공간을 시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비가 지척지척 오는 어느 여름날 순영은 집에서 나와 딱히 갈 곳이 없다. 서대문 정거장에서 남대문과 동대문에서 오는 전차를 무심히 다 보내고 유난히 먼지가 펄럭이는 전차갓길을 걸어 봉래교에 다다랐다. 순영은 봉래교 난간에서 바람을 맞으며 다리 아래 얼키설키 놓여있는 철로를 무심히 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약값을 대기위해 의사 집에 팔려간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비도덕적인 평판을 받고 있는 대부호 류택수의 첩이 되는 일은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존감의 선을 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고뇌가 일어나는 장소는 봉래교 돌난간이며 그녀가 보고 있는 풍경은 비가 거의 그칠 무렵(정오)의 서울역에서 봉래교까지 이어져 있는 철로이다. 봉래교(蓬萊橋)는 지금은 없지만 중구 의주로2가 옆천교 동쪽 부근에 있던 다리이다. 다리 밑에 경의선 철로가 있으며, 다리 이름은 봉래동의 동명에서 유래되었다(<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

상기한 3개의 에피소드는 사람들과 대중교통 수단의 왕래가 많은 대로에서의 공간시학이라면 다음의 에피소드들은 골목길에서의 공간 시학에 해당된다.

<사랑과 죄>에서 지순영이 경성역 인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초매부의 집으로 향해 갈 때 지덕진은 순영을 미행했으나 순영의 자취를 잃어버리고 헤매면서 서소문정을 미로처럼 휘감기는 매우 이질적이며 타자의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이 장면은 새문밖¹⁹⁾ 조선인 마을에 거주하는 지덕진이 일본인 거주지인 서소문정을 처음 밭을 들여놓으면서 느낀 인상을 표현한 대목이다. 지덕진은 동생 순영이 서양인도 아니고 일본인과 교제한다는 생각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순영을 놓치게 되자 오히려 어떤 은폐된 장소에서 순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싸이게 된다.

순영이는 대한문 앞까지 오더니 청인에 집이 질번질번한 XX동 거리로 쫓드렸다... 덕진이는 여기까지 와서 놓쳐버려선 큰일이라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며 하등하등 뻘뻘 둘러다 보았으나 이 골목안이 워낙 여러 갈래로 길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어느 길로 들어섰는지 그동안에 자취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조선사람의 집은 물론이요 일본집에라도 조선 사람의 문패가 부튼 집이라고는 없었으며 일본 상점의 배달부와 계다를 신은 일본인 하녀가 돌아다녔다.

(염상섭 전집2, 사랑과 죄, pp.20-21)

<삼대>에서 부잣집 자제인 조덕기가 독립운동가 집안인 필순네(덕기의 친구인 병화의 하숙

19) 돈의문(지금의 강북삼성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광화문 쪽을 “새문안”, 서대문 쪽을 “새문밖”으로 지칭하였다. 특히 돈의문은 서북부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서대문네거리, 냉동, 홍파동, 교남동,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저소득층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는 통로에 위치해 있었다.

집)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덕기는 지나가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서대문에서 내려서 몇 번이나 물어 홍파동에까지 와서 수첩을 꺼내보고, 이 골목 저 골목을 꼬불꼬불 뺑뺑 돌아야 양의 창자다. 서울서 이십여년을 자랐건만 이런 동네에는 처음 와 보았다. ...덕기는 참 정말 이런 집은 처음 본 것 같았다. 마치 김칫독을 거적으로 싸듯이 꺼떻게 거적으로 뺑 둘러싼 집이다. (삼대, pp.44-45)

덕기는 서대문 역에서 내려 토막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인 홍파동 일대를 헤맨다. 덕기가 서대문 정거장에서 내려서 홍파동에 위치한 김병화의 하숙집을 찾기 위해 걸어간 것은 서대문 네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연장되는 전차노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잣집 자제인 덕기는 움막 같은 집에 퀴퀴한 냄새나는 습기 찬 방, 그리고 잡지와 신문이 흐트러져 있는 하숙방 풍경에 “이런 생활도 있다”고 놀라면서 극빈자의 생활을 하는 병화가 “불쌍하다기 보다는 너무 무능하고 밋살맞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지금의 홍파동을 포함하여 적십자 병원과 서대문형무소(현저동) 사이에 있는 지역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의 불량주택들은 1920년대에 급증하여 서울의 불량주택은 1931년 1,538호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다.²⁰⁾ 하숙집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자의 집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주지다. 덕기의 눈으로 본 홍파동의 골목길과 김병화의 하숙방은 경성도심의 도시화가 식민지 권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근대화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도시풍경이었다.

3.4 집(가옥)

<사랑과 죄>에서 조선인 귀족에 속하는 이해춘은 자신의 애인이며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인 지순영을 모델로 인물화를 그리는 미술가다. 이해춘은 미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림 작업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승인 심초매부(심초매부)의 집에서 작업을 한다. 심초매부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인물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우월성을 내세우지도 않는 중립적 인물로서 이해춘과 지순영 모두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예술가다. 심초매부는 이해춘에게 화실을 제공하고 동경미술전람회 출품을 독려한다. 그의 집은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소문정에 있으며 이해춘의 미근동 집과 지순영의 냉동 집과 근거리에 있다. 사실 서소문정

20) 손정목(1996)『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일지사, p.254. 불량주택은 움, 토굴, 토막으로 불렸으며 임시적인 집들을 말한다.

은 남대문으로부터 오다가 대한문에 이르기 전 왼편으로 꺾이는 길이지만 1920-30년대 인구통계에서 보듯이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들이 거의 같은 비율로 거주하던 곳이다. 서소문정의 초입엔 주로 중국인들이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경성법원과 경성부청 등에 근무하는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지금의 순화동 가까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사랑과 죄>에서도 “총독부 관리의 관사나 회사원들이 사는 동리”(p.21)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심초매부의 집은 염천교에 가까운 서소문정(지금의 순화동)이라 할 수 있으며 북창정과 함께 대표적인 일본인 거주지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지순영은 흔히 ‘새문밖’이라 불리었던 서대문네거리 인근 냉동에 살았던 가난하고 평범한 조선인이다. 순영의 어머니 해주집은 아편중독자로 순영의 출생의 비밀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 한다. 순영의 오빠 지덕진은 해춘과 순영의 사랑을 방해하고, 순영을 자산가인 류택수의 첩으로 보내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한다. 이해춘의 아버지 이판서는 친일 부르주아이며 한 때 해주집을 첩으로 삼던 자다. 이 같이 <사랑과 죄>에 등장하는 모든 조선인 어른들은 아편중독으로 타락하고 물신숭배로 인해 속물로 전락한 반면에 재경 일본인 심초매부는 이해춘에게 화실을 제공하고 실의에 빠진 지순영에게 진정한 마음을 담아 위로를 하고, 속물로 전락한 류택수에게 훈계를 마다하지 않는 인격을 갖춘 어른으로 형상화된다. 이렇게 볼 때 <삼대>에 나오는 ‘바커스’의 일본인 주부(酒婦), <무화과>의 ‘보도나무’ 카페의 여급 마쓰코, 그리고 <사랑과 죄>의 심초매부는 모두 재경 일본인으로서 조선인들조차 지니지 못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가가 그 당시 식민지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일본인들보다 오히려 조선인들이 부화뇌동하여 속물로 전락하는 세태에 대해 심한 저항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이를 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삼대>의 병화는 신학대학을 가리는 친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사회주의 운동에 종사하기 위해 기출하였다. <무화과>의 봉익과 종엽은 마작을 하며 생활하는 방랑의 생활이다. 병화의 하숙집은 홍파동이라는 빈민들이 사는 곳인 반면에 봉익과 종엽의 하숙집은 규모가 큰 한옥으로 삼청동에 자리하고 있다. <삼대>에서 덕기는 사회주의 사상에 치우쳐 있던 병화를 지지하고 병화의 하숙집 딸인 필순을 사랑하게 된다. 병화와 경애가 효자동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찬가게를 열면서 필순네 세 식구는 효자동 가게로 이사하게 된다. 이 같은 공간 이동은 필순에게는 더 나은 생활환경으로의 사회적 이동을 의미한다. 가난한 조선인 거주공간에서 일본인들이 사는 동네로의 이동이기 때문이다. 덕기와 필순의 사랑이 진전되는 지점은 필순 아버지가 병화의 사건에 휘말려 부상으로 의전병원(醫專病院)에 입원한 이후부터이다. 이 무렵은 덕기에게는 조부 조의관 사망이후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갈등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덕기 자신도 돈과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와 일본문화가 혼재된 현상은 인물들의 이동과정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가옥이나 상점의 구조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무화과>에서 길순이가 최원애의 집을 찾아가는데 최원애의 집을 화양(華洋) 절충식으로 지은 문화주택으로 표현하고 있다. 식민지기에 지어진 ‘문화주택’들은 한식과 일본식의 방이 한 지붕 안에 공존하는 한일(韓日) 병렬식 주거형태를 말한다. 가옥이 이층인 경우 아래층은 온돌식의 방을 마련하고 이층은 다다미로 된 방을 설치하였다. 이는 이층에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장마철에는 다다미방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또는 나무로 된 물통을 설치하여 뜨거운 물을 채우고 목욕을 하는 일본식 욕실을 설치하기도 한다. <삼대>에서 산해진도라는 상점의 구조를 다다미와 온돌이 혼재된 장소로 그리고 있다. 최원애는 인사동의 안달외사의 집에서 자고 낮에는 남산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비밀리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김동국을 원조한다. 길순이가 도보로 이동하는 남대문에서 조선신궁 방향의 언덕길은 지금의 소월로에 해당하므로 최원애의 집은 식민지기 남미창정(南米倉町)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길순이는 남대문터에서 차를 내려서 조선신궁 뒤로 난 자동차 길만 따라 올라간다. 그 중턱 오른편에 새로 지은 화양절충제의 문화주택이 최원애의 집이다. 이 집은 울가울에 낙성을 하고 옮겨 들었다. 아래층은 양실과 온돌방을 들이고 이층은 다다미방이다. (무화과, p.152)

<삼대>의 산해진진은 경애가 사춘 오빠인 피혁이 맡긴 자금으로 효자동에 일본인이 하던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반찬가게다. 그런데 산해진진의 업장에 딸린 방은 일본식 다다미방으로 병화가 숙식하는 방이며 안으로 꺾어 들어가면 온돌방이 나오는데 이 방은 필순네가 쓰는 방이다. 다다미방은 상점 밖에서 보이지만 상점을 들어서서 꺾어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온돌방은 은폐된 장소다. 병화가 이 가게를 개업한 것도 자신의 사회주의 운동을 은폐하기 위한 기획에서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개업 자금이 독립운동을 하는 피혁이 놓고 간 자금이었기 때문에 산해진진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장소로 남는다. 이러한 일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병화와 경애, 그리고 필순의 부친이 폭력을 당하게 되고 필순의 부친은 심각한 신체손상으로 의전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사실 <삼대>의 플롯에 근거하면 경애와 병화가 자신의 사회주의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산해진진이라는 가게를 개업했다는 주장에(유인혁·박광현, 2014;조미숙, 2015)²¹⁾ 이의를 제기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주의 운동, 즉 독립운동은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루어졌

21) 유인혁·박광현(2014)「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이중적 구조의 건축과 식민지도시의 이중성」『한국어문학 연구』62, pp.102-103, 조미숙(2015)「무화과에 나타난 1930년대 경성의 장소성」『통일인문학』65, p.412

으며 경애의 친척 오빠인 피혁도 러시아로 간 상태다. 그런데 경애는 자신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상훈의 호적을 얻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병화는 생활이 어려운 필순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생활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필순과 그녀의 부모는 홍파동에서 효자동으로 옮겨 온 후로 산해진을 운영하면서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경애와 병화에게 산해진이 사회주의 운동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매우 미약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다. 다음 대목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필순이는 요새 같은 겨울에도 첫차가 나오는 소리가 뚜르르 나자 일어나서 가갯방에서 자는 병화가 깰까 보아 조심조심 빈지를 열고 가게를 내노라면 병화도 자지 않고 같이 일어나서 남대문장으로 서투른 자전거를 빙판 위에 달리는 것이다. 필순이 부친도 조선옷은 안 어울린다 하여 고물상에서 주워 온 흰 양복바지에 재킷을 푸근히 입고 가게 속에 놓인 화로 앞에 나와 앉았다. 모든 것이 아직 초대요 연습이었으나, 평화롭고 전도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흥이 났다. 필순이는 첫차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막차가 들어간 뒤라야 자리에 눕지마는 고단은 하면서도 자리 속에서 까지 물건 값을 외우고 파는 솜씨를 연구하기에 어느 때까지 잠이 아니 왔다. 요새는 공부하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가다가는 덕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삼대, p.385)

또한 조덕기가 홍경애가 새로 개업한 일본반찬가게 산해진을 찾아오면서 조선박람회 이후로 효자동 인근 지역에 일본 집들이 증가하고 있다²²⁾고 묘사한 것은 남촌에 주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점차 북촌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1926년 조선총독부, 1925년 남산에 조선신궁, 1925년 경성역사가 완공되고 1929년 조선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일본인들의 북촌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남촌은 일본인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고 북촌은 조선인 거주지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전차가 효자동 종점에 가까워졌을 때, 덕기는 차 속에서 일어서서 박람회 이후로 일자로 부쩍 늘어난 일본 집들을 유심히 보았으나, 산해진이란 간판은 눈에 아니 띄었다. 차에서 내려서 되짚어

22) 유인혁박광현, 상계서, p.99. 경복궁 영추문 근처 효자동은 <삼대>가 집필되던 1929-1930년에 일본인의 가구 수가 급증하였다. 주요요인은 경복궁에서 조선박람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인혁박광현은 다음과 같이 효자동의 인구 추이에 대해 경성상공회의소 통계연보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1928				1929				1930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347	1640	57	250	321	1658	75	321	336	1616	94	385

오며 차츰차츰 뒤지다가 좌등상점이란 간판이 붙은 가게의 유리문 안을 기웃해 보니, 과실이 놓이고 움파니 미나리니 하는 것이 눈에 띈다. (삼대, p.386)

<무화과>의 조일사진관은 수표동 xx번지로 표명하고 있다. 1930년대 수표정은 서울에서 동단위로 네 번째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동네다.²³⁾ 이층으로 된 건물로 이층 지붕 위에 조일(朝日)사진관이라 쓰여 있고 일본어로 アサヒ(아사히)를 덧붙였다. 조일사진관은 일본인 고객을 상대하는 상점임을 알 수 있다. 조일사진관이 중국인 거리에 위치한 것은 수표동 중국인 거리가 아편쟁이와 윤락녀가 많이 몰려 거주하고 그에 따라 범죄율이 높아 일본 경찰이 이들에게 주목하게 되어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²⁴⁾ 조일사진관에서는 정애가 홍근에게 동경에서 가져 온 과자상자를 전달하는 등 실제로 내밀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에 반해 <삼대>의 산해진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전혀 없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또한 조일사진관 뒤편에 “사진관과 똑 떨어진 판 집 같은 뒤채”가 있다고 묘사하는데 이 건물은 거미줄이 얽혀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로 다가온다. 실제로 정애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곳에 피신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삼대>에서는 주의자들의 실제 활동은 없었던데 반해 <무화과>에선 주의자들의 활동을 공간적으로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가는 말

염상섭의 장편소설 <삼대>, <사랑과 죄>, <무화과>의 서사 공간을 분석하는 작업은 현재의 서울도심 공간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대성(모더니티)을 발췌하는 작업과 같다. 근대성은 공간적 특징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지각, 사유, 행동 양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포스트 모던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서울도심에서 경성이라는 모더니티를 읽어내는 작업은 단지 객관적인 아카이브(archives)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학의 공간 서사를 이용하면

23) 1925년경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태평동 2정목이며 그 다음이 서소문정과 장곡천정 순이었다. 1930년엔 서소문정이 태평동 2정목을 앞질렀다.

24) 오미일(2013)「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 거리와 마굴 이미지의 정치성」『東方學志』163, p.22 중국인 거리의 뒷골목에는 아편굴과 매음굴, 도박장이 존재했으며 그 부수효과로 살인이나 폭력 등도 간혹 발생했다. 그래서 중국인거리의 뒷골목은 한낮에도 으스스하고 음침한 ‘魔窟’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중국인은 아편을 밀수하여 조선인을 아편중독자로 만들고 사회를 피폐화시키고 조선 소녀 인신매매범으로 지목되곤 하였다.

포괄적인 모더니티를 읽어낼 수 있다. 바슐라르는²⁵⁾ “공간은 그것의 수많은 벌집 같은 구멍들 속에 시간을 압축해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공간은 과거가 켜켜이 쌓여 희미하게 새겨진 양피지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염상섭의 문학공간을 통해 식민지기 경성에 대해 상상적 공간 이미지를 갖게 된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은행 앞 광장에 가게 된다면 <삼대>의 인물 ‘덕기’ <삼대>가 전차에서 급히 하차하는 이미지 혹은 <사랑과 죄>의 인물 ‘류택수’와 ‘정마리아’가 성적 욕망에 쫓기어 동대문 행 전차에 비상(飛上)하는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눈 오는 어느 겨울날 저녁노을이 사라질 즈음에 광화문을 건다보면 <삼대>의 인물 조상훈이 본 것처럼 승객이 띄엄띄엄 앉아있는 불 켜진 전차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경성을 형상화한 문학공간은 실제 생활에서 상상의 무대를 제공하고 미적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염상섭은 <삼대>에서 조선신궁을 식민자(일본인)가 부재한 공간이며 오히려 사회주의 운동을 기획하는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랑과 죄>에서는 1925년 10월 조선신궁의 진좌제가 실시되기 3개월 전 실제로 발생한 조선의 대홍수를 소설 서두에 반영하고 있다. 조선의 건설인부들은 조선신궁을 동화될 수 없는 이질적인 공간이며 다만 경성부민들에게 시각적 스펙타클을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신궁은 북동쪽의 장충단 공원에서부터 남서쪽의 일본군 사령부가 있는 용산 까지 경성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즉 경성을 커다란 원형감옥인 팜옵티콘(panopticon)으로 비유한다면 조선신궁은 감옥 중앙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감시탑에 비유할 수 있다. 1930년대 경성은 일본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개인들에게 신체적·사상적 자유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경찰력을 이용한 감시기제를 지속적으로 작동시켰기 때문에 피식민자는 스스로 규범에 순응하는 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신궁은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종교 권력이 결합된 감시기제라고 할 수 있다. 남대문은 아편쟁이, 매독환자와 노숙자, 그리고 중국인 상점의 이미지를 대입시키고 있다. 박태원의 작품에서도 남대문은 거지와 실업자가 모여드는 부정적 장소로 그리고 있다. 이는 서소문정과 태평통, 그리고 북창정에 있었던 중국인 거주지와 유곽, 그리고 아편의 유통 네트워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염상섭 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 인물들은 최상류 자산가와 지식인(변호사, 기자, 미술가)들로 등장하고 여성인물들은 중하층 출신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여급, 기생, 팜프파탈적 모던 걸, 아편쟁이, 사기꾼, 거지 등도 그리고 있어 매우 다양한 인물 군을 형상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들의 이념도 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일본 친화적이며 계몽적

25) 가스통 바슐라르 저, 곽광수 역(2003) 『공간의 시학』 동문선, p.83

색채를 띠고 있는 이광수의 소설, 그리고 주로 룬펜 인텔리를 전면에 내세워 현실 도피적 성향을 띠는 박태원 소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경성 내에서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도 계몽 소설이나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이는 염상섭이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1920-30년대 경성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소설들은 물신화된 자본주의적 욕망이 지배하는 조선인들의 불안정한 일상을 파헤치면서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간접적이고 은밀한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을 문제 삼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물신숭배와 비윤리적 욕망에 사로잡힌 조선인 부르주아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조선인 그리고 일본인 감시자를 한 공간에 배치하고 긴장관계를 유지시킨다. 주인공을 감시하는 일본 형사와 부도덕한 조선인을 등장시키는가 하면 ‘선한 사람’으로 형상화된 재경 일본인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사랑과 죄>의 심초매부가 그 중의 한 사람이다. ‘바커스’는 남촌 진고개에 위치하고 일본인 주부(酉婦)와 조선인 여급 흥경애, ‘보도 나무 카페’는 북촌 인사동에 위치하고 조선인 주부(최원애)와 일본인 여급이 결합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 장편소설은 조선인과 일본인, 상류층과 중하층,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순응과 저항, 생활과 이상에 대한 호불호를 극명하게 나누지 않고 공간적이념적 혼종성을 세밀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가스통 바슐라르 저, 곽광수 역(2003)『공간의 시학』동문선, p.83
 강경애(2005)『인간문제』범우, p.272
 경성부(1926)『京城部町洞別 世代及 人口』
 김대호(2015)『20세기 남산 회현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도시연구』13, pp.30-33
 김영근(2000)『일제하 식민지 근대성의 한 특징: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2
 김지훈(2011)『1910~1930년대 경성(京城) 남대문동(南大門洞) 가로경관 변화와 가로변 근대건축의 특성』석사 학위논문, p.70
 김희정(2004)『별건곤을 중심으로 본 신여성의 복장에 관한 연구』『복식문화연구』12(2), pp.214-215
 류상희(2004)『나카지마 아쓰시 문학작품속의 조선』『일본어문학』23, p.375, p.380
 손정목(1996)『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일지사, p.254
 여환진(2010)『본정과 종로 : 재현을 통해본 1930년대 경성 “번화가”의 형성과 변용』석사학위논문, p.145
 염상섭(1987)『염상섭전집 2:사랑과 죄』민음사, pp.11-12
 _____(1995)『무화과』『한국소설문학대계』6, (주)동이출판사
 _____(2005)『삼대』2판4쇄, 하서출판사
 오미일(2013)『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 거리와 마굴 이미지의 정치성』『東方學志』163, p.22
 오창은(2013)『염상섭문학과 공간의 문화정치: 사랑과 죄의 1920년대 경성』『국어어문』58, pp.166-167

- 유인혁·박광현(2015)「염상섭소설에 나타난 이중적 구조의 건축과 식민지 도시의 이중성」『동악어문학』62, p.99, pp.102-103
- 정지윤(2015)「시간의 흐름을 담은 장소의 회화화 연구: 한국은행 앞 광장 주변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0-52
- 조미숙(2015)「무화과에 나타난 1930년대 경성의 장소성」통일인문학 65, p.412
- 최인영(2010)「일제시기 경성의 도시공간을 통해 본 전차노선의 변화」서울학연구, p.41, p.35
- 高浜虚子(1912)『朝鮮』實業之日本社
- 中島敦(1995)『中島敦全集』筑摩書房, p.17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

논문투고일 : 2016년 12월 16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1월 06일
1차 수정일 : 2017년 02월 06일
2차 수정일 : 2017년 0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2월 15일

〈要旨〉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경성의 공간표상

- 한일 문화의 혼재성을 중심으로 -

변찬복

본고의 연구목적은 염상섭의 3대 장편 소설 <삼대>, <사랑과 죄>, <무화과>가 경성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표상했으며 일본문화와 한국문화가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소설 속에 형상화된 경성의 이중적 도시 구성, 재경성 일본인, 이중 언어 사용, 한일 복합 가옥구조, 카페의 혼종적인 실내 풍경, 주요대로, 한국인과 일본인 가옥이 혼재하는 골목길 풍경 등을 중심으로 담론을 전개하였다. 조선신궁의 입지는 식민지 권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남대문은 식민지 자본주의로부터 소외된 지역으로 표상되었다. 카페는 표면적으로는 피식민자의 소비자유가 보장 되었지만 식민지 권력이 만들어낸 감시기제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훈육되는 공간이다. 때로는 인물들의 고뇌와 환희를 시학적으로 표상하고 있지만 미로는 미행과 탐문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집의 구조는 일본과 전통의 혼합식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소설은 조선인과 일본인, 상류층과 중하층,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순응과 저항, 생활과 이상에 대한 호불호를 극명하게 나누지 않고 공간적·이념적 혼종성을 세밀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Spatial Representation of Gyung Sung from Yum Sang Sup's novels

- Focused on the cultural mixture of Japan and Korea -

Byun, Chan-B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hree major novels represented the space of Gyungsung and how both Japanese and Korean cultures were mixed. To this end, the city structure of twofold, bilingual, Japanese-Korean mixed structure of house, hybrid spatiality of cafe, streets, and ally way were discussed. The location of the Joseon Temple was selected with intent to maximize Japanese colonial governance, and Namdaemun was left undone and isolated from the colonial social security net. Cafes were portrayed as both the place where freedom of consumption was guaranteed and the place where Koreans were unconsciously disciplined by the Japanese surveillance system. The main streets of Gyungsung were poetically embodied where ally ways were used as incognito visit and wicked legwork. The structure of house was also represented in Japanese-Korean mixed way. In general, the target novels did not offer definite likes and dislik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he upper class and the lower class, capitalism and socialism, adaptation and resistance, reality and idea but showed the spatial and ideological hybridity of Gyungsung.